2022 년 7 월 22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RA 김지현 02)3787-3761 jeehyun12@kiwoom.com

미 증시, ECB 회의 결과, 테슬라 효과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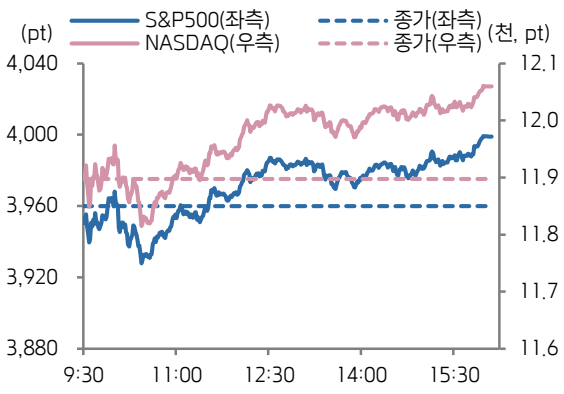
21 일(목) 미국 증시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실업지표 등 경제지표 부진에도, ECB 통화정책회의 50bp 인상 이후 나타난 유로화 안정 및 달러 약세, 테슬라(+9.8%)를 중심으로 한 성장 및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마감(다우 +0.51%, S&P500 +0.99%, 나스닥 +1.36%, 러셀 2000 +0.48%).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11 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50bp 인상 결정, 기존 -0.5%에서 0.0%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남. 라가르드 총재는 '25bp 가 아닌 50bp 인상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유로화 약세 때문이며, 9 월 금리인상폭은 향후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 회의 이후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미국채 10 년물 금리 하락 등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위험선호심리 회복. 특히 달러 강세의 둔화가 해외 수익 비중이 큰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

다만 경제지표는 부진. 미국 7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가 -12.3(예상치 0.8%, 전월치 -3.3%)으로 급락하며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로 전환됐음을 시사. 미국 6 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8%(예상치 -0.6%, 전월치 -0.6%) 하락하며 4 달 연속 하락.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5.1 만명(예상치 24 만명, 전주 24.4 만명) 8 개월만에 최대치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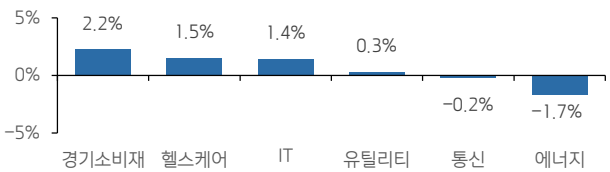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2.2%), 헬스케어(+1.5%), IT(+1.4%) 업종이 강세, 에너지(-1.7%), 통신(-0.2%), 유틸리티(+0.3%) 업종은 약세를 보임. 테슬라(+9.8%)는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가격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2 분기 순이익 호조를 발표하고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를 유지한 영향이 이어지며 5 월 이후 처음으로 800 달러 돌파, 경기소비재 섹터 및 나스닥 상승을 이끔. 한편, 실적을 발표한 AT&T 는 2 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연간 잉여현금흐름을 하향조정한 영향으로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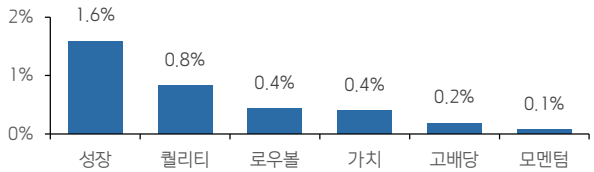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98.95	+0.99%	USD/KRW	1,307.69	-0.38%
NASDAQ	12,059.61	+1.36%	달러 지수	106.59	-0.45%
다우	32,036.90	+0.51%	EUR/USD	1.02	-0.02%
VIX	23.11	-3.22%	USD/CNH	6.77	-0.03%
러셀 2000	1,836.69	+0.48%	USD/JPY	137.38	+0.01%
필라. 반도체	2,916.81	+1.5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865.42	-0.39%	국고채 3 년	3.296	+0.8bp
유럽, ETFs			국고채 10 년	3.370	+1.6bp
Eurostoxx50	3,596.51	+0.31%	미국 국채 2 년	3.085	-14.2bp
MSCI 전세계 지수	620.42	+0.71%	미국 국채 10 년	2.875	-15.2bp
MSCI DM 지수	2,643.93	+0.5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86.56	+0.68%	WTI	96.35	-3.53%
MSCI 한국 ETF	59.22	+1.65%	금	1731.3	+0.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1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6.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테슬라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스냅 시간외 주가 폭락에 따른 국내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 3. 기아, 현대모비스, NAVER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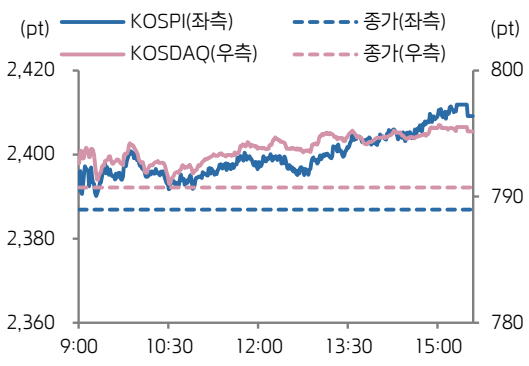
25bp 인상에 그칠 줄 알았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ECB 가 50bp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유럽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유로화도 강세로 전환하는 등 시장 반응은 대체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임. 이는 현재 유로존 내에서도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만큼, 공격적인 금리인상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성장 훼손을 감안하더라도 수요 진작을 통한 물가 압력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시장은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판단.

그러나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에너지 위기와 연관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강도 금리인상 기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 물론 금번 회의에서 TPI(The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1~10 년만기 국공채 매입) 도입을 통해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국채 금리 부작용을 제어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성, 명료성이 부족한다는 점을 감안 시 TPI 도입은 중립 수준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 주요국들의 양호한 실적 시즌 기대감,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임(코스피 +0.9%, 코스닥 +0.6%). 금일에도 ECB 회의 결과, 테슬라 급등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 또 기아, 현대모비스, NAVER, 하나금융지주 등 자동차, 인터넷, 금융 등 주요 섹터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장중에는 개별 실적 이슈에 따라 주가 탄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 또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SNS 업체 스냅(+5.4%)이 비용 상승, 광고 둔화 등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함에 따라 시간외 주가가 26% 넘는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 여파로 메타, 알파벳 등 여타 성장주들도 시간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관련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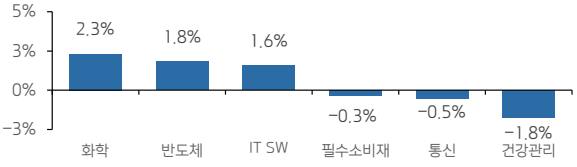
한편, 21 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재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인하(0.23→0.15%), 금융투자소득세 2 년 유예('25 년 시행),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지분율 기준 폐지, 친족 합산 폐지 등)와 같은 개편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 현재 매크로 불확실성은 높고 개별 실적 이슈에도 민감한 장세이므로, 금번 세재 개편안이 당장에 가시적인 증시 상승 재료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 그럼에도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은 연말로 갈수록 호재성 재료 성격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ex: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목적의 강제 개인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한 수급 왜곡 및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기현상 출현하지 않을 가능성).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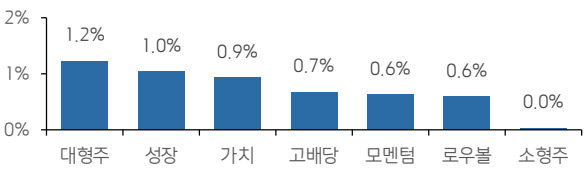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